

베이커리 전문 인테리어업체 현주소

인식전환 필요 ... 공개입찰제 정착돼야

■ 취재 / 오형석 ohs@mbakery.co.kr

IMF를 거치면서 난립했던 인테리어 업체들이 어느정도 정리돼가고 있다. 특히 전문 시공업체가 아닌 소개를 통해 공사를 수주받은 영세업체의 마구잡이식 공사가 빨리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런 시점에서 인테리어 업체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하반기 인테리어 경향을 전문가들을 통해 전망한다.

대표 업체 5곳 정도 ... 영세업체 점차 사라져

업계는 현재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는 베이커리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대략 5곳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표 참조).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져온 세한인테리어(대표 이현수)는 자본금 5억원으로 88년 12월에 설립됐다. 현재 건축, 실내장식, 전기기기, 공예소품 등 베이커리 전반에 관한 토털인테리어 업체로 성장한 이 회사는 일본과 동유럽의 선진화된 디자인을 견학을 통해 국내에 접목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리와바사와 합작해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평균 공사 기간을 10~30일로 잡고 있으며 2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장 특성에 따라 1500~2500만원 사이에서 실제 공사계약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제품 맛과 함께 독특한 실내분위기의 제과점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특히, 신세대들의 등장으로 단순히 빵을 파는 곳에서 벗어나 분위기를 파는 문화의 장소로 옮겨지고 있다”고 하반기 인테리어 경향을 전망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피드디자인(대표 한복균)은 89년 3월에 설립됐다. 시각적인 효과보다 소비자의 동선을 중시하는 기능성 위주의 인테리어를 지향하고 있는 이 회사의 평균 공사 기간은 15~20일이며 20평

매장을 기준으로 할 때 2,500~3,000만원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복균실장은 “예전에는 화려한 디자인을 선호했으나 단순화되고, 심플한 것으로 기호가 옮겨지고 있어 네추럴한 칼라와 무늬목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하반기 경향을 설명했다.

빵굽터 전 매장과 자영제과점을 시공하고 있는 아이디디자인(대표 김서중)은 91년 2월에 관악구 봉천동에 설립됐다. 설립 이후 제과점만 시공한 전문성을 살려 견고함과 실용성의 조화를 중요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업체는 17~18일을 평균공사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전면매장과 코너매장을 구분, 20평 기준에 예상 공사가를 4,000만원과 4,5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김서중사장은 “시기적으로 크리스마스가 포함돼 있어 외향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반기 인테리어 경향을 전망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메카디자인(대표 김성민)은 93년 4월에 설립됐다. 서울지역 260개, 경기지역 50개 업소를 시공한 이 회사는 최근 케이크와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복합매장인 케이크카페로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욕적인 사업전개를 꾀하고 있다. 쟈스타일과 미니멀리즘의 세미클래식계열과 화이트, 체리목스타일의 모던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이 회사는 총 계약 금액의 85~90%를 실제 공사에 투입하는 등 저이윤형 전적가를 지향하고 있다.

20평 매장을 기준으로 전면매장의 경우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예상공사가로 책정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18~23일로 잡고 있다. 김성민실장은 “유럽풍의 쟈스타일 성격이 두드러지고 각종 전문점의 영향으로 강한 색조, 어두운 색조, 밝은 색조의 3가지 부류로 정착되고 있다”며 “새로운 판매기법인 테이크아웃(Take-Out)이 확산되면서 고객 지향적이고 감동판매기법에 부응하는



